

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 이봉준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

마약사범 중 10~20대 비율이 급증하고¹⁾

20대와 학생의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

전 국민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²⁾

마약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

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
1)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'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'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(0.8%), 20대는 1478명(16.6%)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(2.9%), 3507명(33%)으로 5년 새 2~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) 식품의약품안전처 <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>
전국민 평균 78.7점, 20대 71.2점, 학생 70.7점

○ ‘마약 김밥’, ‘마약 베개’ 등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층이 마약류가 불법적인 유해한 약품이라는 인식을 정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,
본 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
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